**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 순종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0-27절>**

**20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21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2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2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24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25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26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27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2015년 새 해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 해 들어 첫 번째 한인공동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마태복음 7장 24절을 주제말씀으로 받아,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함께 노력해가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올 한 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며 반석 위에 각자 인생의 집을 잘 지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행하며 산다는 것이 물론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때로 그것은 매우 어렵고 버겁게 느껴집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때는 의지를 들여 노력해야 가능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 봉사자 임명식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연초에 집사로, 교사로, 찬양봉사자나 소식지 편집위원 등으로 임명 받아 봉사하다 보면, 중간에 그 일이 너무 힘들고 버겁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또한 오늘은 우리 한인공동체가 이곳 꼬빌리시에서 첫 예배 드린 지 15주년이 되는 주일인데요, “체코교회와 함께 호흡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내걸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걸어온 길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다는 걸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주님의 말씀을 행하며 산다는 것이 그저 괴롭기만 한 일일까요? 괴롭고 힘들어도 억지로 해내야만 하는 일종의 고행과 같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분의 삶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죄악과 고통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희생을 통해 죄인을 구원하고 세상에 평화를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그것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초점을 맞춘 삶이었습니다. 끝까지 그는 성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삶이 행복하지 않았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삶은 인생의 참 행복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알려주는 삶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주위 사람들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신비한 은혜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삶은 주님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는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십니다. 23절에 보니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말씀합니다. 순종은 단순한 고행이 아니라, 내 마음 속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접하고 그를 사랑하게 된 사람이 그분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런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예수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었고 그를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그의 말에서는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그의 행동에서는 거짓됨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곧이어 그들은 예수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서의 사랑은 남녀간에 에로스가 아니라 상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우정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참으로 믿을 만한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기에 “나를 따르라”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여 따라 나설 수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오히려 그를 죽이려는 마음을 먹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속에는 이미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거할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들을 귀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보는 복을 누렸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 당시 제자들처럼 그분을 직접 만나 뵐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접하고 우리 역시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남녀간의 사랑의 관계에도 뜨거울 때와 냉랭할 때가 있는 것처럼, 주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관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울 때는 주님의 말씀을 행하기가 좀 더 수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좀 더 의지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끊어지거나 식어지지 않도록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나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던 연인도 오랜 기간 서로 떨어져서 교제가 없으면 마음이 식어지기 쉬운 것처럼, 주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더 잘 실천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교회 봉사자로 임명 받은 모든 분들이 올 한 해 무엇보다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 속에 늘 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실천하며 주님의 몸 된 교회와 세상을 기쁘게 섬겨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편, 주님을 사랑하여 그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영적인 유익이 주어집니다. 본문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주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라는 찬양 가사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을 행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사랑으로 함께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주의 말씀을 행할 수 있다는 말도 맞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행할 때 주의 사랑 안에 더 온전히 거할 수 있다는 말도 맞습니다.

또한 21절에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려면 어디로 눈을 돌려야 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분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의 삶 속에서 그분 자신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증거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주님이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이 땅에서 증거하며 살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지난 15년의 시간 동안, 우리 꼬빌리시교회와 함께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속에서 당신을 나타내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공동체적 삶의 여정도 지금까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꼬빌리시 한인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 속에 함께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세상에 당신을 나타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분,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놓고 무관심하게 계신 분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어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본문 26절과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후 그들 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제자들은 심히 당황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기대와 소망은 흔들리기 시작했고, 근심과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성령을 약속해 주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지게 되리라고 하십니다.

실제로 오순절 성령강림 이후 제자들의 지성은 놀랍게 깨어났습니다. 그들은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과 이전에 주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들을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 가운데 담대히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도 그와 동일한 일을 행하십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자 힘쓸 때, 성령은 우리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삶의 현장 속에서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 지를 세밀히 지도해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근심과 두려움을 조장하며 거짓된 평안을 약속하는 세상 속에서 무엇보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주님의 평안을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그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조급하게 끌려 다니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고, 타인의 연약함을 용납할 줄 알며, 자기 것을 이웃과 나누며 살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세상에 평화를 이루는 일은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지는 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꼬빌리시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저 괴롭기만 한 고행의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 속에서 걸어가는 진리와 생명의 삶입니다. 평안과 기쁨의 삶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면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분의 사랑 가운데 더 깊이 들어오라는 은혜로운 초청입니다. 그분이 우리 삶에 더 가까이 다가오셔서 거처를 함께하기 원한다 말씀하시는 가슴 설레는 두드림입니다.

새 해의 벽두에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 말씀을 행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세상에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올 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늘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 속에 있기를 힘쓰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므로 주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시기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우리 꼬빌리시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앞으로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는 이들에게 늘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행하며 살기 원하는**

**꼬빌리시교회 온 교우들 머리 위에**

**주님을 세상에 나타내도록 부름 받은 이 교회 위에**

**오늘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임명 받은 모든 봉사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